

“결혼전교육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정 현 숙**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ung, Hyun-sook

〈Abstract〉

This study is a part of three year project of “A Study on the Development, Evaluation & Outreach of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unmarried and married couples’ attitude about marriage and family, marriage preparation status, their needs of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and ingredients of marital happiness to developing base line data of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communication & conflict resolution, financial management,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are the major contents area to be considered to develop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Critics and recommendation for need assessment and educational methods were added.

▲주요어(key words) :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결혼전교육프로그램(marriage preparation program), 결혼동기(motivation for marriage), 가족이념(family ideology),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핵가족화 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가구 중 1세대 가가와 2세대 가구는 각각 14.7%, 57.7%로 부부중심의 가구가 전체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부가족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지원과 체지보다는 부부역할이 결혼생활의 성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 개인의 특징이나 사회적 지원의 정도보다는 부부간 관계적 특징, 예를 들면, 성, 여가생활, 부부간의 헌신(commitment),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기영 외 1995; 정현숙·유계숙, 2001).

이와 같이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관계적 기술이 결혼생활 유

지에 필수적이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들의 이혼율과 가족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해방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80년과 1995년에 급격한 증가를 기록한 다음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1970년 한 해 1만 건 수준이던 이혼건수는 2000년에는 13만 5천 건으로 하루 평균 877쌍, 시간당 37쌍이 갈라지고 있다(통계청, 2001). 이혼한 부부의 평균연령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결혼기간이 0~4년은 이혼건수가 가장 많아 30.5%에 이르며, 5~9년도 23.9%로 결혼 10년 이내의 이혼율은 전체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의 원인은 부부불화가 74%로 부부간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한 부부들이 그들 관계의 초기에 심각한 결혼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결혼 초기의 심각한 갈등의 예는 심재근(1992)의 70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연구 대상자중 42.2%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으며, 구타가 일어나는 시기는 결혼 1년 이내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 본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1-C00312)

** 주 저 자 : 정현숙 (E-mail : hschung@smu.ac.kr)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필수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혼한 부부들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혼한 부부들이 건설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결혼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기를 기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왜냐하면 최근의 가족문제의 증가 및 이로 인한 부부 및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특히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예: Wallerstein & Blakeslee, 1989; Wallerstein, Lewis & Blakeslee, 2000)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Wallerstein과 동료들의 5, 10, 20년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부모 이혼 후 10년까지, 때로는 그 이후에도 심각한 심리장애를 겪으며, 2~8세의 어린 연령층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도 9~18세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나이 든 자녀들처럼 타격이 예상외로 심했다고 반박하면서 이혼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 사회는 매우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과거의 가치관과 행동으로는 현재의 생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더욱이 정보화시대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또는 가족생활의 가치관을 교육하는 곳으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가족의 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있어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교육, 부모준비교육과 같은 가족생활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는 이혼율은 올바른 결혼관과 부부관계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결혼의 의미와 결혼에 대한 기대는 변화하고 있다(Ford, 2002. 4. 23.).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이후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혼율 급증은 '이혼이 금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든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만 있으면 독신도 괜찮다'는 생각과 같이 결혼의 의미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전후세대'들이 결혼의 대안으로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생긴 현상이라는 점이다(한국가족학회 편, 1993).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정보화 사회가 가속된다고 볼 때 당분간 이혼의 증가가 예측된다. 우리의 경우도 결혼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만 인식할 뿐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혼란스러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역할을 가족생활교육 분야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효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미혼시기의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며, 교육효과도 지속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Gallagher(2002. 4. 23.)는 결혼전 교육을 받은 예비부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부정적인 감정교환과 폭력을 및 이혼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말순(1998)도 결혼전 부부교육이 결혼후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이혼과

가족폭력 등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생활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영역에서 결혼준비교육은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그 결과 결혼준비교육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예: 김혜석, 1990; 박말순, 1998; 박미경·김득성, 1997; 이지은, 1993; 정민자, 1996), 결혼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예: 김혜선·고효정, 1997; 김혜선·한은숙, 1998; 김혜선·박희성, 2001; 김혜선·신수아, 2002)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최근의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이로 인한 젊은이들의 의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인 이론에 기반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족생활교육은 가족학에서 중요하게 발견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족에게 교육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구에 기초하여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의 문화, 즉 가족이념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은 주로 외국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발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가족의 가치관과 의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생활교육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결혼의 동기, 가족이념,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참여실태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육참여 저해요소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의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과 필요성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선행절차는 학습자인 결혼전 젊은이들의 욕구 및 흥미가 분석되어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생활교육과 같은 평생교육은 자발적인 동기와 참여에 의한 주체적인 자기학습과정이므로 이들의 요구와 흥미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과 가족생활과 관련된 교육 참여가 낮은 이유는 가족이 사적영역이라는 인식과 함께, 가족생활을 교육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학습자의 욕구와 차이가 있는 내용이 교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욕구와 흥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도 분석은 주로 지각된 욕구(felt need)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Powell과

Cassidy(2001)에 의하면, 가족생활교육의 내용 구성은 Arcus와 동료들(1993)이 제안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각된 욕구(felt needs)와 교육자의 욕구(ascribed needs) 및 미래의 필요에 의한 욕구(future needs)가 반영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발달적 욕구와 능력(developmental needs and abilities)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요구도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지각된 욕구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자나 프로그램 개발자가 참여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욕구들과 미래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욕구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사회의 지금까지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혜선과 동료들(김혜선·고효정, 1997; 김혜선·한은숙, 1998; 김혜선·박희성, 2001; 김혜선·신수아, 2002)의 연구에서 결혼의 중요 준비영역으로 제시된 원가족과의 관계 및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이해 정도, 맞벌이·경제문제, 자녀·친인척관계 등에 대한 대화정도 등을 중심으로 결혼준비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이러한 준비가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결혼전 교육내용을 계획하고자 한다.

셋째, 가족관계는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와 함께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적 특성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혼준비는 결혼초기의 적응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생활은 신혼기, 확대기, 중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다양한 발달과업에 대한 장기적인 적응과 변화의 과정이다. 결혼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다(서동인·정현숙, 1995; 정현숙 1996). 따라서 평균수명의 증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급속한 현대가족에서의 적응을 위한 결혼준비는 신혼기의 발달과업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준비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long-term marriage)들의 결혼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인을 발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혼남녀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혼부부와 중년부부들의 경험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결혼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결혼만족도는 현재의 결혼에서의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에 의해 경험되는 불행감(unhappiness), 만족감(satisfaction), 기쁨(pleasure) 등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부부관계의 질과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혼기와 중년기의 결혼한 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결혼준비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지적된 성, 자녀의 수, 직업유무, 결혼기간(유영주, 1991; 정현숙, 1997) 등의 영향을 통제하고, 결혼전 교육과 갈등유무(이선미·전귀연, 2001), 성숙도, 결혼준비(김혜선·고효정, 1997) 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므로써 결혼준비 필요성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소를 파악하므로써 결혼 전 교육내용을 조사하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변화된 미혼남녀와 결혼한 부부들의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미혼남녀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인 20대 미혼남녀의 지각된 욕구, 발달적 욕구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관과 가족관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과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였으며,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인 파악을 위해 신혼, 중년부부의 결혼과 가족관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2차 연구인 결혼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변화하는 한국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미혼남녀, 신혼부부 및 중년기 부부 등 세 집단을 편의표집하였다. 프로그램 대상인 미혼남녀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요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결혼준비과정이 실제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 설계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혼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와 중년부부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혼부부들을 통해 결혼전 준비도가 현재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중년부부들의 오랜 결혼생활의 경험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한 요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30세미만으로 현재 이성 파트너가 있는 미혼남녀 163명,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 142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중년부부는 초혼으로 결혼 20년 이상 부부 79명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수집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2003년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미혼남녀와 신혼부부용, 중년부부용 질문지로 구성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문항의 난이도와 질문방식 및 응답방식 등을 점검하였다. 세 질문지 공통으로는 인구통계관련 문항, 결혼동기,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소, 원가족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미혼과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준비와 관련된 실태와 요구도가 포함되었다. 신혼부부와 중년기 부부들은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정도가 신혼기 부부는 결혼과정이 추가되었다.

결혼준비실태는 결혼전 준비교육유무,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정현숙(in press)의 결혼준비도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준비도척도의 하위영역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준비로 나누어져있으며,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아주 그렇다)의 Likert척도이다. 결혼준비도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7개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하위영역은 현재 파트너와 결혼 전에 맞벌이·경제문제, 자녀·친인척관계 등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정도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정도 및 개인의 성숙정도와 두 사람의 관계의 질 등 7영역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영역은 5문항으로 ‘나는 나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다’ 등 자신의 성격, 결혼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한 자신의 인식정도를 나타내며, 내적합치도 신뢰도는 $\alpha=.82$ 이다. 성숙도는 ‘나는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안다’, ‘나는 부모님과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등 감정통제능력과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을 포함하는 9문항으로, 내적합치도 신뢰도는 $\alpha=.70$ 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준비영역은 “배우자에 대한 이해”(5문항), “경제 및 맞벌이에 대한 준비”(8문항), 자녀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9문항), “의사소통”(7문항),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4문항) 등 5개영역으로 신뢰도는 각각 $\alpha=.90$, $\alpha=.92$, $\alpha=.85$, $\alpha=.78$, $\alpha=.76$ 이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는 결혼 전 부모와의 관계, 결혼관, 가족관 등을 측정하였다. 결혼전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결혼 전 당신과 아버지(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셨는지?’의 두 문항으로 1(전혀 친하지 않았다)-6(아주 친밀했다)의 6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결혼관과 행복한 결혼생활요소는 Barich와 Bielby(1996)의 결혼동기척도와 Sharlin, Kaslow와 Hammerschmidt(2000)의 결혼만족도의 요인을 이용하였다. 결혼에 대한 기대척도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 등 10개 영역에 대한 결혼동기를 묻는 척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규범에 대한 동조”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여 11개 항목으로 결혼관의 하위항목을 구성하였다.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인척도는 ‘상호신뢰’, ‘흥미의 공유’, ‘개방성’ 등 총 23개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결혼관과 행복한 결혼생활요소와 같은 측정도구의 경우 하위항목마다 중요도를 Likert 척도로 측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높은 점수에 응답하는 경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동기 3개, 행복한 결혼요인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행복한 결혼요인 23개 중 3개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부부갈등은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척도를 이용하였다. 부부갈등척도는 Bradbury, Fincham과 Beach(2000)에 의해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 되었다. 본 척도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

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등을 포함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항상 그렇다)의 7점 척도이다. 요인분석결과 한 요인으로 묶였으며, 신뢰도는 $\alpha=.96$ 이다.

결혼만족도는 Schumm과 동료들(1983)의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을 수정한 정현숙(1996)의 RKMSS이다. 본 척도는 4문항으로 결혼생활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아내(남편)에 대하여, 아내(남편)와의 관계에 대해, 아버지(어머니)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한 만족정도로, 매우 만족(7)에서 매우 불만족(1)의 7점 척도이다. 신뢰도는 $\alpha=.97$ 이다.

가족에 대한 태도는 정현숙(in press)의 가족이념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교주의적, 도구주의적, 서정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의 4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척도이며, 요인분석결과 각 하위가족이념별로 가족관(5문항) 및 결혼가족관계에 대한 이념(5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유교주의적 가족이념의 내적합치도 신뢰도는 각각 $\alpha=.68$, $\alpha=.79$ 이다. 도구주의적 가족이념의 신뢰도는 각각 $\alpha=.67$, $\alpha=.73$ 이다. 서정주의적 가족이념은 $\alpha=.83$, $\alpha=.62$ 이며, 개인주의적 가족이념 신뢰도는 각각 $\alpha=.76$, $\alpha=.60$ 이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WIN 8.2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반적인 결혼과 가족에 대한 특성은 집중경향치와 빈도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인분석과 사각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미혼, 신혼기, 중년기의 태도차이는 One-way ANOVA와 Scheffe 검증을 하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파악은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미혼남녀 163명, 신혼남녀 142명, 중년남녀 73명으로 총 384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23.5세, 29.8세, 48.9세이며, 남성 비율은 각각 45.2%, 59.9%, 58.2%이다. 미혼 남녀중 학생은 60.4%, 직장인은 39.6%이다. 결혼한 대상 중 주부의 비율은 36%이다.

2. 결혼 및 가족관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인 세대별 결혼 및 가족관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동기, 행복한 결혼의 요소, 가족이념을 살펴보았다.

1) 결혼동기

미혼, 신혼기, 중년기의 결혼동기에 대한 빈도와 순위는 <표 2>와 같다. 세 집단 모두 사랑과 애정,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중요한 결혼동기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혼과 신혼기는 사랑과 애정을 중년기는 행복한 자녀를 중요 동기로 가장 많이 지적해 세대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동료애, 사회규범에 동조, 성인의 지위획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동기에 대한 세대차이와 함께 점차 사랑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 표 1 >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미혼남녀	신혼남녀	중년남녀
		빈도 (%)	빈도 (%)	빈도 (%)
성	남	79 (45.2)	85 (59.9)	46 (58.2)
	여	84 (54.2)	57 (41.1)	33 (41.8)
학력	고졸	14 (9.0)	14 (10.0)	7 (9.0)
	대학생	88 (56.8)	3 (2.1)	37 (47.4)
	전문대졸	14 (9.0)	25 (17.9)	7 (9.0)
	대졸	30 (19.4)	55 (55.0)	23 (29.5)
	대학원이상	9 (5.8)	15 (15.0)	4 (5.1)
직업	학생	93 (60.4)	6 (4.3)	0 (0.0)
	주부	0 (0.0)	14 (9.9)	21 (26.9)
	일용직	1 (0.7)	1 (0.7)	2 (2.5)
	서비스, 자영업	4 (2.6)	14 (9.9)	23 (29.5)
	회사원, 교사 등	41 (26.6)	87 (61.7)	19 (23.4)
	5급공무원이상, 간부	3 (2.0)	4 (2.8)	10 (12.8)
	전문직	1 (0.7)	9 (6.4)	2 (2.6)
	무직	3 (2.0)	2 (1.4)	1 (1.3)
	기타	8 (5.2)	4 (2.8)	0 (0.0)
연령	23.5세 sd=2.2	29.8세 sd=3.2	48.9세 sd=5.1	
결혼기간	.	1.86년 sd=0.2	24.3년 sd=4.0	

* 결측치의 차이로 빈도수가 차이가 있음

< 표 2 > 결혼의 동기에 대한 세 집단의 순위

	미혼남녀	신혼남녀	중년남녀
사랑과 애정	1	1	2
경제적 안정	2	3	2
정서적 안정	3	2	4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	4	4	1
합법적인 성욕충족 배우자와 도덕적일치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	5	5	. 5 5
인성발달 성인의 지위획득	9	5	8 7
동료애	8	10	.

2)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인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인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세 집단 모두 상호신뢰가 행복한 결혼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미혼과 신혼기는 사랑을, 중년기는 경제적 안정을 그 다음으로 지적하였다. 세 집단 공통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내심과 이해심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중년남녀는 친인척과의 갈등없음을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으며, 미혼과 신혼기는 애정표현을 지적해 다른 집단과 대조되며 세 대간의 차이와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 표 3 > 행복한 결혼의 요소에 대한 세집단의 순위

행복한 결혼의 요소	미혼남녀	신혼남녀	중년남녀
사랑	1	2	4
상호신뢰	2	1	1
경제적안정	3	3	1
상대방에 대한 존중	4	4	4
인내심과 이해심	5	5	3
종교심	6	7	5
애정표현	7	6	.
흥미의 공유			.
성생활만족			8
비슷한 삶의 철학	8	8	6
평등적 관계			11
자녀		9	7
서로의 독립성존중		11	.
상호 성적만족감	9	12	12
상대방에 대한 존중		10	8
부부간 정절을 지킴			8
여가시간 함께함	10	13	13
배우자의 매력			8
중요결정 함께하기			7
개방성과 정직성	11	14	11
친인척간 갈등 없음	12	15	3
이야기 잘 들어줌	13	1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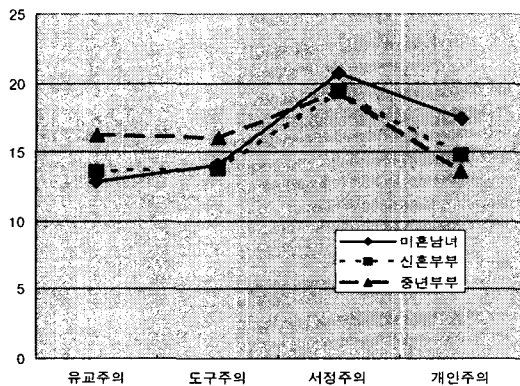
3) 가족관

집단간의 가족이념 하위영역별 평균점수와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는 <표 4>,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세 집단 모두 가족가치관과 결혼부부관계 가치관은 서정주의적 가족이념이 가장 높으나 미혼남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점수의 서정주의적 가족이념을 나타낸다. 유교주의적, 도구주의적 가족관은 중년남녀들이 미혼과 신혼부부보다 점수가 높으며, 서정주의, 개인주의 가족관은 미혼남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현재 미혼남녀의 가족이념은 이전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결혼부부관계에 대한 도구주의적 가치관은 중년남녀들이 가장 높으며, 개인주의적 가족관은 중년, 신혼기, 미혼집단의 순으로 점수가 높아져 세대간 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가치관 중 결혼부부관계의 가치관은 실제 결혼생활을 하는 남녀가 미혼남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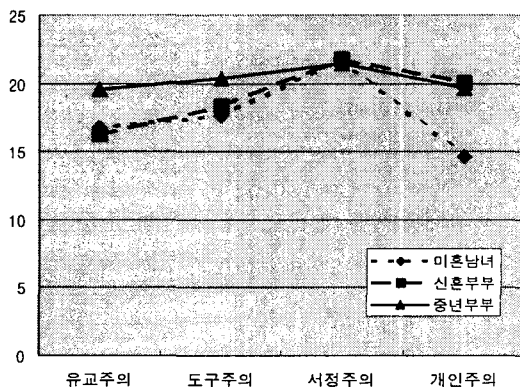
< 표 4 > 가족이념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오차 및 F검증 결과

가족이념	하위항목	미혼남녀		신혼남녀		중년남녀		F검증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유교주의적 가족관	가족관	12.9 a*	4.6	13.6 a	4.2	16.2 b	5.2	14.0**
	결혼부부 관계	16.7 a	3.6	16.2 a	3.3	19.6 b	3.7	26.4**
도구주의적 가족관	가족관	14.1 a	4.0	13.8 a	3.8	16.0 b	3.7	9.01**
	결혼부부 관계	17.6 a	2.9	18.3 a	3.9	20.4 b	3.7	19.9**
서정주의적 가족관	가족관	20.7 a	3.0	19.4 b	2.6	19.4 b	3.2	9.6**
	결혼부부 관계	21.8	3.1	21.8	2.7	21.5	3.6	0.3
개인주의적 가족관	가족관	17.4 a	2.9	14.8 b	3.3	13.6 c	3.6	43.2**
	결혼부부 관계	14.6 a	3.0	20.1 b	2.6	19.7 b	4.0	133.85**

* 같은 문자 간에는 차이가 없음 ** p<.001



< 그림 1 > 세 집단의 가족가치관 평균



< 그림 2 > 세 집단의 결혼·가족관계가치관 평균

3. 결혼준비 실태

1) 결혼준비교육 참여 실태 및 결혼정보 얻는 방법

미혼남녀 151명 중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명(9.3%)이며, 7명은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4명은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 2명은 요리나 홈패션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이들 14명의 프로그램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4.1점(6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신혼부부들 중 결혼준비교육에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 부부는 15명(10.6%)으로, 요리 홈패션에 5명, 의사소통프로그램 1명,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7명, 기타 2명이다, 이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2(6점 만점)이다.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표 5>와 같다. 미혼남녀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를 못느끼는 경우가 27.8%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24.8%이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54.5%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로 두 집단 모두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표 5 >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불참 이유의 빈도와 비율(%)

	필요를 못느끼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름	시간이 없어서	비용 없어서	관심 없음	기타
미혼남녀	37(27.8)	33(24.8)	9(6.8)	0	33(24.8)	21(15.8)
신혼부부	26(20.7)	66(54.6)	22(18.2)	1(0.8)	6(5.0)	1(0.8)

대부분의 미혼남녀와 신혼부부들이 결혼준비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의 결혼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미혼남녀와 신혼부부 59%는 주변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6 > 결혼준비정보를 얻는 방법 빈도와 비율

	주변사람	인터넷	광고	책	기타
미혼남녀	96(59.3%)	43(26.54%)	16(9.88%)	3(0.9)	3(0.9%)
신혼부부	82(58.6%)	43(30.7%)	1(0.7%)	11(7.9%)	3(2.1%)

2) 결혼준비도

결혼준비도척도의 하위영역별 평균은 <표 7>과 같다. 결혼준비도는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에 대해 결혼전 현재의 파트너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정도이다. 두 사람이 현재 관계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인 관계의 질은 평균 이상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 성숙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만, 맞벌이·경제문제, 자녀·친인척관계에 대한 대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화정도를 나타낸다.

< 표 7 > 결혼준비도척도의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

	맞벌이· 경제문제	자녀· 친인척 관계	의사 소통	배우자 이해	관계 질	자신에 대한 이해	성숙도
미혼 남녀	2.86 (1.02)	2.55 (1.02)	3.81 (0.65)	3.79 (0.68)	4.16 (0.61)	3.84 (0.55)	3.40 (0.48)
신혼 부부	3.48 (0.67)	3.36 (0.68)	3.72 (0.58)	3.79 (0.62)	4.09 (0.57)	3.98 (0.52)	3.68 (0.48)

4. 미혼남녀, 결혼한 사람들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남녀들의 관계의 질과 신혼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8>, <표 9>와 같다. <표 8>에 의하면 미혼남녀들의 관계의 질은 집단소속, 원가족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의사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직장인들이 대학생들보다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며,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서정주의적 가족이념점수가 높을수록, 또한 데이트관계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 이들 변인 중 의사소통이 β=.46로 가장 영향이 높은 변인이다.

< 표 8 > 미혼남녀의 파트너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β
성(남=1)	-.03	-.01
소득	-.00	-.04
교육수준	.00	.00
집단(직장인=1, 학생=0)	-1.3	-.26*
결혼생활교육유무(유=1)	-.76	-.09
유교주의적가족이념	.02	.03
도구주의적가족이념	-.00	-.001
서정주의적가족이념	.22	.27*
개인주의적가족이념	-.09	-.11
부모와의 관계	-.20	-.22*
결혼전 준비영역		
맞벌이·경제문제	-.04	-.14
자녀·친인척관계	.07	.25
의사소통	.25	.46**
배우자에 대한이해	.02	.03
자신에 대한 이해	.04	.05
성숙도	-.06	-.03
intercept	4.55	
R ²	.50***	

* p<.01 ** p<.001 * p<.001

< 표 9 >에 의하면 신혼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부부의 갈등해결방식, 원가족에서의 부모와 관계, 결혼전 관계의 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이 적을수록, 현재 원가족의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 전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 후 결혼만족도가 높다. 이들 변인 중 갈등해결방식과 결혼전 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이다.

< 표 9 > 신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b	β
결혼기간	-.13	-.06
성(남=1)	.09	.02
가족소득	-.00	-.08
자녀수	-.20	-.06
교육수준	.08	.05
직업유무	-.31	-.03
결혼전 교육유무(유=1)	.72	.12
갈등해결방식	-.37	-.43*
부모와의 관계	.21	.31*
결혼전 준비영역		
맞벌이·경제문제	-.01	-.03
자녀·친인척관계	.05	.14
의사소통	-.01	-.03
배우자에 대한 이해	-.02	-.02
관계의 질	.27	.30*
자신에 대한 이해	-.08	-.09
성숙도	-.05	-.10
intercept	8.10	
R ²	.57*	

* p<.05 ** p<.01 *** p<.001

결혼한 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결혼기간, 성별, 직업유무, 결혼전 교육유무,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 갈등해결방식 등이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즉,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남자들이 여자들 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 또한 결혼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부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정적인 갈등해결의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 이들 변인 중 갈등해결 방식이 β=-.42로 결혼만족도에 가장 영향이 많은 변인이다.

< 표 10 > 결혼한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 요인

	b	β
결혼기간	-.06	-.20**
성(남=1)	.59	.11**
가족소득	-.00	-.03
자녀수	.01	.01
교육수준	.10	.06
직업유무(유=1)	1.53	.10*
결혼전 교육(유=1)	.66	.09*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	.28	.26***
갈등해결방식	-.41	-.42***
자신에 대한 이해	.01	.01
성숙도	.04	.08
intercept	6.08	
R ²	.50***	

* p<.01 ** p<.001 * p<.001

5.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

미혼남녀와 신혼남녀의 결혼준비교육의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표 11>, <표 12>와 같다. 이들의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며, 책을 통한 개인교육, 직접 참여하는 교육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낸다. <표 12>에서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면,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재정·자원관리, 부모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 표 11 > 미혼남녀, 신혼남녀의 선호 교육방식 빈도와 비율(%)

	직접기관 방문참여	책을 통한 개인교육	인터넷을 통한 교육	TV방송을 통한 교육	1:1 교육 상담	기타
미혼남녀	85(20.2)	90(21.4)	96(22.9)	64(15.2)	75(17.9)	10(2.4)
신혼부부	58(14.4)	94(22.3)	118(29.3)	72(17.9)	58(14.4)	3(0.7)

* 복수선택의 빈도임

< 표 12 > 원하는 교육내용의 빈도 및 비율(%)

	요리·홈패션 등	의사소통 갈등해결	성 교육	재정 자원 관리	혼수 결혼식 준비	친인척 관계 향상	부모 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미혼남녀	49 (11.1)	106 (24.0)	57 (12.9)	76 (17.2)	30 (6.8)	36 (8.1)	57 (12.9)	31 (7.0)
신혼부부	68 (16.3)	84 (20.2)	34 (8.2)	61 (14.7)	42 (10.1)	44 (10.6)	64 (15.4)	19 (4.6)

* 복수선택의 빈도임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전 미혼남녀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평가 및 보급하기 위한 장기 연구의 1차 연구로 결혼을 앞둔 20대 남녀와 신혼기 및 중년기 남녀들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요구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남녀, 신혼기남녀, 중년남녀 모두 사랑과 애정,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중요한 결혼동기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순위에서는 미혼과 신혼남녀는 사랑과 애정을, 중년부부는 행복한 자녀를 중요 동기로 지적해 세대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동기에 대한 세대차이와 함께 점차 사랑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미혼남녀, 신혼기남녀, 중년기남녀 모두 중요하게 지적한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소는 '상호신뢰', '경제적 안정' 및 '상대

에 대한 존중'과 '인내심과 이해심'이다. 또한 중년남녀들은 '친인척과의 갈등 없음'을 미혼과 신혼기는 '애정표현'을 지적해 다른 집단과 대조되며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신뢰감과 존중감이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경제적 요인과 같은 가족환경 조건과 인내심 등의 성격적 측면이 함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셋째, 집단간 가족이념은 미혼남녀, 신혼남녀, 중년기남녀 모두 서정주의적 가족이념이 가장 높으나 미혼남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점수의 서정주의적 가족관을 보인다. 유교주의적, 도구주의적 가족관은 중년부부들이 미혼과 신혼부부보다 점수가 높으며, 서정주의, 개인주의 가족관은 미혼남녀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현재 미혼남녀의 가족이념은 이전세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결혼부부관계에 대한 도구주의적 가치관은 중년남녀들이 가장 높으며, 개인주의적 가족관은 중년, 신혼남녀, 미혼집단의 순으로 점수가 높아져 세대간 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가치관 중 결혼부부관계의 가치관은 실제결혼생활을 하는 남녀들이 미혼남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서정주의적 가족이념과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은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낮아 이에 대한 해석 및 프로그램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미혼남녀와 신혼기남녀의 결혼준비실태를 살펴보면 미혼의 9.3%, 신혼기부부의 10.6%만이 결혼준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혼남녀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를 못느끼는 경우가 27.8%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24.8%이다. 특히 신혼남녀의 경우 54.5%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로 두 집단 모두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의 결혼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미혼남녀와 신혼부부 59%가 주변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정보습득의 부족을 보여준다.

다섯째,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착도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 성숙도, 배우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지만, 파트너와 맞벌이·경제문제, 자녀·친인척관계에 대한 대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화 수준이 낮다.

여섯째, 미혼남녀들의 관계의 질과 신혼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대학생들보다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하며,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서정주의적 가족이념점수가 높을수록, 또한 데이트관계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 이러한 변인중 의사소통이 가장 영향이 높은 변인이다. 신혼기 남녀들의 결혼만족도는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이 적을수록, 현재 원가족의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 전 관계의 질이 높을

수록 결혼 후 결혼만족도가 높다. 이들 변인 중 갈등해결방식과 결혼 전 관계의 질이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한 남녀들의 결혼만족도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 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 또한 결혼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정적인 갈등해결의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 이들 변인 중 갈등해결 방식이 가장 영향이 높은 변인이다.

일곱째, 교육방식에 대한 요구도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며, 책을 통한 개인교육, 직접 참여하는 교육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낸다. 원하는 교육내용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재정·자원관리 부모준비교육을 높게 요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방식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결혼 전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결과이다. 결혼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결혼전 교육유무이며,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결혼 전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전 관계의 특성이 결혼 후까지 연결되며, 결혼 전 교육을 받은 부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즉, 결혼전 관계는 결혼관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시기의 교육효과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결혼전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이다. 이는 Gallagher(2002, 4. 23), 박말순(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미혼시기에 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효과적인 결혼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결혼준비교육 등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혼남녀나 신혼부부들의 결혼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60%이상이 주변사람에게서 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변의 정보는 객관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미혼남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서(신혼부부) 등으로 프로그램 홍보가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현숙(1998, 2002)의 지적과 같이 가족생활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도움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정보적, 교육적 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을 교육과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기인(정현숙 외, 2003)하는 현상이므로,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한 연구과정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가족생활교육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지원을 명문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셋째, 미혼남녀들의 정보습득방식이나 지위(대학생 혹은 직장인)에 적절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며, 책을 통한 개인교육, 직접

참여하는 교육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낸다. 이는 Gregorc(1982)의 주장과 같이 학습자에 따라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이나 정보 습득방식의 차이가 있어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원하는 교육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정현숙(2002)도 가족생활교육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대중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지각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결혼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책 형식의 출판물, 직접교육을 위한 교사용·학생용교재의 개발 등 다양한 포맷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소책자, 팜플렛, 지도자교육서로 개발되고, 인터넷을 통해 보급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재 미혼남녀들은 인터넷 사용세대, 즉 정보화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이들의 인터넷 이용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결혼준비교육 Site의 개발도 필수적이다.

넷째,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의 중요한 요소나 가족이념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부부관계의 과정적 측면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관에 관한 이념과 결혼부부관계에 대한 이념은 차이가 나타난다. 결혼부부관계에 대한 도구주의적 가치관은 중년부부들이 가장 높으며, 개인주의적 가족관은 중년, 신혼부부, 미혼집단의 순으로 점수가 높아져 세대간 가치관의 변화양상과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주의적가치관 중 결혼부부관계의 가치관은 실제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미혼남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가 결혼기간을 반영한 결과인지, 결혼생활을 통해 현실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기 때문인지, 혹은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가를 해석하기에는 좀더 체계적인 추후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족원의 성(sex)과 가족생활주기 및 세대의 구조적 특징(특)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이나 친밀감등의 관계적 특성에 의해 부부관계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정현숙(2002)의 주장을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의 과정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인내심과 이해심”이 행복한 결혼의 중요요소인 점과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부부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결혼전 준비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은 결혼준비교육의 요구도에서 가장 높은 영역이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애정표현을 행복한 결혼의 중요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애정표현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된다. 미혼남녀는 데이트관계에서 원만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관계의 질을 높게 인식했으며, 의사소통이 독립변인 중 관계의 질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다. 신혼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정적 갈등해결방식으로 나타나 갈등해결이 결혼관계에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은 미혼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중 하나이다. Duncan, Dunnagan, Christopher과 Paul(1999)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가족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부정적인 갈등해결의 방식은 신혼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Markman과 동료들(1994)의 부부갈등척도는 Bradbury, Fincham과 Beach(2000)에 의해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척도의 하위문항인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등에서 지적된 부정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파트너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관계향상과 이혼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자원관리: 미혼남녀, 신혼부부, 중년부부 모두 행복한 결혼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한 내용이 재정·자원관리영역이다. 또한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맞벌이에 대한 문제와 경제문제에는 한 요인으로 묶인다. 이는 경제문제는 맞벌이여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맞벌이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과 신혼부부들은 경제적 안정을 중요한 결혼의 동기로 지적하여 결혼생활에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점차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3) 관계 특성 이해: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소 중 중요한 요소는 '상호신뢰' 및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내심과 이해심'이 지적되었다. 또한 결혼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 즉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은 결혼생활의 과정이며, 상호신뢰와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결혼생활만족도의 중요요인이라는 부부관계에 대한 인식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인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이념, 결혼의 중요요소, 결혼의 동기의 세대간의 차이를 볼때 부부관계의 과정적 관점에 기초한 교육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에서 결혼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예상과 달리 미혼보다 신혼부부, 중년부부들이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결혼관계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므로 부부관계 이해 영역이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4) 부모준비교육: 연구대상 공통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의 요소로 높게 지적된 부분이 부모준비교육에 대한 요구이다. 그러나 미혼 남녀들이 결혼전 자녀·친인척관계에 대한 대화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화점수를 나타낸다.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의 부모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갖게 되며 의사소통기술이 향상되고(김향은·정옥분, 1999), 부모자녀관계가 향상된다(김혜순, 1997) 또한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적 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성격특성이 나타나며(권춘기, 1994),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며(김향은·정옥분, 1999), 학업성취능력이 향상됨(김미애, 1987)을 보고하고 있어 부모교육은 중요한 교육영역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부모준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 중 하나는 결혼준비도 영역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자녀에 대한 내용과 친인척에 대한 내용이 한 요인으로 묶인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의 역할을 표현적인 역할(의사소통, 성적인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기 등), 도구적 역할(경제, 가사분담 등), 부부와 주위사람과 관계형성(자녀, 친척, 친구, 일, 지역사회 등)의 세 가지로 개념화한 Anderson(1993)의 부부역할내용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와 신혼부부의 경우 서정주의적 가족이념과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이 높은 것과는 관련이 있다. 즉, 가족이념이 과거의 도구적, 유교적이념에서 서정적, 개인주의적 이념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세대인 중년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유교주의적, 도구주의적 가족이념을 높게 지각하고 있어 이러한 양상이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중년부부들은 '친인척과의 갈등 없음'을 다른 세대와 달리 중요한 결혼행복의 요소로 지적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파트너와 이를 새로운 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준비 못지않게, 새롭게 형성될 고부관계, 장인-사위관계 등 성인부모와 자녀관계까지를 포함한 관계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미혼남녀들의 관계의 질과 결혼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원가족의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높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부모준비교육의 내용은 새롭게 형성할 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친인척관계를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예방적 차원의 가족생활교육의 활성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이 소책자, 팜플렛, 지도자교육서로 개발되고, 인터넷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므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미혼남녀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으로서 본 프로그램의 보급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작업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편의적 표집에 의해 연구대상을 표집하였으며, 미혼남녀와 신혼부부, 중년부부 등 결혼기간에 따른 가족과 결혼에 대한 태도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횡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세대간의 영향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세대관계의 원인에 대한 해석과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신중한 해석과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가족이념척도 중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의 척도가 .60으로 낮아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 접수일 : 2003년 10월 21일
- 심사일 : 2003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2월 12일

【참고문헌】

권춘기(1994). 부모효율성훈련이 자녀지도 방법 및 자녀 안정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애(1987).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효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향은·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김혜순(1997).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선·고효정(1997). 청년기 남녀의 결혼준비도 I. 한국방송대논문집, 24, 419-442.

김혜선·박희성(2001). 텔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 125-143.

김혜선·신수아(2002).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 연구 : 기혼 남·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 41-53.

김혜선·이정읍(2003).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14(2), 211-224.

김혜선·한은숙(1998).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평가를 위한 척도개발 II. 한국방송대논문집, 26, 397-416.

박미경·김득성(199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5, 47-77.

박말선(1998).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서동인(199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1(1).

심재근(1992).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 아내 구타의 이론과 발생빈도 그리고 구타양상.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67-98). 서울: 탐구당.

이기영 외(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 113-126.

이선미·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0.

이정연·정혜정·장진경(1996). 젊은 며느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12-31).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미래인력연구센터.

이지은(1993).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1996).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의 변화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34, 373-391.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정현숙(1998). 가족생활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 55-68.

정현숙(2002). “가족생활교육사”의 전문직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1-17.

정현숙(2002). 부부관계와 가부장성. 2002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정현숙(in press). 가족이념척도 개발연구.

정현숙(in press). 미혼남녀를 위한 결혼준비도척도 개발연구.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정현숙·정영화·천혜정·양승은·조은희(2003).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마련. 여성부 연구보고서 2003-03.

통계청(2001). 2001년 혼인·이혼통계 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한국가족관계학회 편(1993). 이혼과 가족문제. 서울: 하우.

Anderson, V.(1993). Internal dynamics of families: Marriage-paring & partnership. In NCFR, *Family life education teacher's kit*, NCFR.

Arcus, M., Schvaneveldt, J. & Moss, J.(1993). The nature of family life education. In M. Moss, J. Schvaneveldt & J. Moss, J.(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1*, 1-25. Newbery Park, CA: Sage.

Barich, R. & Bielby, D.(1996). Rethinking marriage. *Journal of Family Issues, 17*(2), 139-169.

Bradnury, T., Fincham, F. & Beach, S.(2000). Research on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A decade review. In R. Milardo(Ed.), *Understanding families into the new millenium: A decade reiew(183-199)*. NCFR.

Duncan, S. F., Dunnagan, T., Christopher, S. & Paul. L.(1999). *Evaluating the outcomes of a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fostering self-reliance: Insights into transformative learning*. Presented at the 61st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Ford, P. “In Europe, marriage is back”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02. 4. 10.).

Gallagher, M. “Marriage and Public Policy: What Can Government Do?”, *Policy Brief*.(2002. 4. 23.)

Gregorc, A. F.(1982). *An adult's guide to style*. Columbia, CT: Gregorc.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Powell, L. & Cassidy, D.(2001). *Family life education*.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Schaie, K. W.(1977). Developmental designs revisited. In S. Cohen & H. Reese(Eds.). *Life-span development psychology*. Hillsdale, Erlbaum.

Sharlin, S., Kaslow, F. & Hammerschmidt, H.(2000). *Together through thick and thin*. NY: The Haworth Clinical Practice Press.

Wallerstein, J. & Blakeslee, S.(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Y: Ticknor & Fields.

Wallerstein, J., Lewis, J. & Blakeslee, S.(2000).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NY: Hyperion.